삼성전자 240Hz 기술, SID 「올해의 디스플레이 제품상」 수상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240Hz LCD 패널이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인 SID(Society of Information Display)로부터 「올해의 디스플레이 제품상(Display Device of the Year)」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디스플레이 제품상(Display Device of the Year)」은 「디스플레이 부품상(Display Component of the Year)」,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상(Display Application of the Year)」과 함께 매년 SID가 「올해의 디스플레이상(Display of the Year Award)」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각 부문에 금상 및 은상이 있다.

이번 수상은 세계적인 디스플레이학회가 최근 업계에 소개되고 있는 240Hz 관련 기술 중 삼성전자의 240Hz 기술을 최고 기술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의 240Hz 기술은 1초당 60장의 이미지로 구동하는 영상에서 두 장의 영상 이미지 사이에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3장의 이미지를 삽입해 초당 240장의 이미지로 구동하는 기술이다.

초당 구동하는 영상 이미지의 숫자가 높을수록 잔상이 없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의 동영상 화면을 즐길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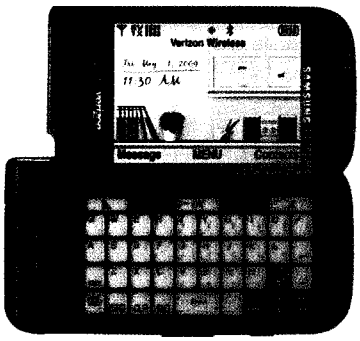
그 동안 LCD는 액정의 낮은 응답 속도와 영상 신호처리 속도 문제 때문에 240Hz 구동이 불가능하게 여겨져 왔지만, 삼성전자는 액정의 응답 속도를 2배 향상시키고, 신호처리 속도를 4배 향상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삼성전자 LCD사업부 김형걸 전무는 "삼성전자는 LCD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됐던 동영상 잔상 문제를 해결했고, 세계적인 디스플레이학회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LCD TV는 빠르게 240Hz 방식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3월부터 240Hz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해, 9월부터 이 기술을 적용한 LCD 패널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수상 제품을 6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되는 SID 「디스플레이위크 2009」 전시회에서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美서 전자잉크 기능 적용한 프리미엄 메시징폰 '앨리어스 2' 출시



북미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신규 프리미엄 메시징폰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전자 잉크 기능을 휴대폰 키패드에 적용한 프리미엄 메시징폰 '앨리어스 2 (Alias 2)'를 미국 시장에 전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 잉크는 키패드 적용시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종이 인쇄와 가장 유사한 가독성을 확보하여 장시간 사용시에도 눈에 피로감을 덜 수 있다. 또한 전면에 조명을 탑재하여 깜깜한 환경에서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

'앨리어스 2'는 휴대폰을 가로와 세로 두 방향으로 모두 열 수 있는 듀얼 힌지형 디자인을 채택하여 키패드를 여는 방향에 따라 키패드에 내장된 전자 잉크가 자판의 표시를 자동으로 변경해준다.

일반 폴더형 휴대폰처럼 세로 방향으로 열었을 때는 숫자 자판이 나타나 일반 통화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메시징, 이메일 작업 등을 위해 가로방향으로 열었을 때는 쿼티형 문자 자판이 자동으로 나타나 편리하게 문자 등을 자유자재로 입력 가능한 키패드를 구현하였다.

기존의 터치스크린 형식 키패드와는 달리 야외에서도 키패드를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전자잉크의 장점인 저전력 기술을 적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전력 소모가 거의 없다.

이외에도 200만화소 카메라, 블루투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모두 갖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폰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북미 시장 1위의 기록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북미 시장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인 26.3%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1위 업체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다.

출하량 또한 역대 최고치인 1140만대로 3분기 지난 해 3분기, 4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출하량 천만대 돌파도 이어갔다.

삼성전자, 美 베스트 바이 '브라보 어워드' 대거 수상

삼성전자가 美 최대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인 베스트 바이(Best Buy)가 수여하는 '2009년 브라보 어워드'를 대거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베스트 바이가 수여하는 2009년 브라보 어워드에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Best of the Best) (올해의 협력업체:vendor of the year)'를 비롯해 TV, 휴대폰, 가전 제품부문에서 브라보 어워드(Bravo Award)를 수상하는 등 총 4개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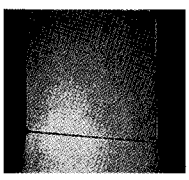
1966년 설립된 베스트 바이는 미국 49개주에 1,031개 매장을 갖고 있는 미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로, 매년 기술력, 품질, 이익 등 각 항목에 걸쳐 베스트 바이 자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TV, 휴대폰 등 각 부문별로 지난 한해 동안 주요 실적에 기초해 가장 뛰어난 협력업체에게 '브라보 어워드'를 수여한다.

삼성 TV는 4년 연속 베스트 바이가 수여하는 '브라보 어워드'를 수상했고, 휴대폰과 가전은 올해 처음으로 '브라보 어워드'를 수상함으로써 'TV-휴대폰-가전' 부문에서 최고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특히 휴대폰 부문에서 '브라보 어워드'는 통상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수여됐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수상함으로써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북미총괄 최창수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 바이의 브라보 어워드 대거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제품경쟁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삼성전자는 우수한 기술과 탁월한 제품을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주)에스엔에스텍, 하드마스크 기술개발



국내 블랭크마스크 전문업체인 에스엔에스텍이 차세대 블랭크마스크인 '하드마스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블랭크마스크는 반도체 및 LCD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마스크

핵심 원재료로 석영기판 위에 차광막 · 반사 방지막 · 감광막으로 구성돼 있다.

에스엔에스텍(대표 남기수)은 45나노 이하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한 블랭크마스크 '하드마스크'를 개발, 5월께 시범 양산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 회사는 호야 · 신에쯔 등 일본 선두 블랭크 마스크 업체 대비 한 발 앞서 하드마스크의 물질 구조 특허를 출원, 국내 · 외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하드마스크는 기존 석영 기판위에 '500옹스트롱(100억분의1m)의 차광막 +100 옹스트롱의 몰리 실리 금속막 + 1500 · 2000 옹스트롱의 감광막'을 얹은 것으로 미세 회로 패턴을 몰리 실리 금속막에 새기고 감광막을 벗겨낸 후 다시 금속막의 패턴을 차광막에 새긴다.

또한 하드마스크는 노광 작업에서 빛이 3000옹스트롱의 두꺼운 감광막을 정확하게 투과하지 못해 45 나노 이하 미세 회로 패턴을 구현하지 못하던 기존 바이너리 블랭크 마스크의 단점을 해소하고 PSM(Phase Shifter mask) 블랭크 마스크 보다 패턴 구현 공정이 간단한 게 장점이다.

뜨거워지는 SSD 속도 경쟁에스엔에스텍 관계자는 "하드마스크 개발을 계기로 기존 65 나노 이상 공정용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고부가의 45 나노 이하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며 "올해 하드마스크 등 신제품에서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달성, 블랭크 마스크 시장을 국산으로 대체한다"고 말했다

노틸러스효성

노틸러스효성(주)

노틸러스효성(대표 류필구)은 세계적인 현금자동입출기(ATM)전문업체다. 미국 전역과 국내에 각각 10만여대와 4만여대의 ATM을 설치해 관리할 정도로 ATM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다. 이 회사는 최근 충남대 인터넷침해대응연구센터로부터 온라인에서 ATM과 은행 호스트 간 터미널 마스터키(TMK)를 공유하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 기술은 ATM이 고장나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온라인을 거쳐 호스트로부터 암호화모듈을 전송받아 상호 인증을 거쳐 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노틸러스효성은 미국 시장에서 자체적인 특허 기술이 없어 ATM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보내 기기별로 TMK를 교체해왔다. 하지만, 기기가 한두 대가 아닌만큼 TMK 교체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틸러스효성이 충남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TMK 교체 기술은 미국 윈코, 독일 디볼드 등 세계적인 ATM 기기 업체 두 곳만이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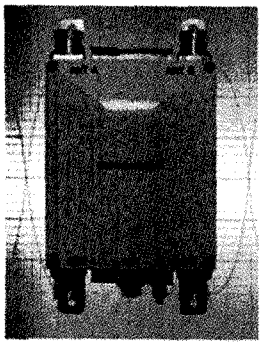
충남대가 개발한 기술은 이미 개발된 윈코와 디볼드와의 기술과는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방안으로, 기술적로도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호 인증키를 호스트와 ATM 단말이 각각 반쪽씩 소유해 인증 단계에서 키를 맞추는 방법으로 고안됐다.

노틸러스효성은 현재 이 기술의 독자적인 상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뜨거워지는 SSD 속도 경쟁 강성훈 본부장은 "영국과 캐나다가 TMK 전송을 온라인화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상용화가 완료되면 자체 기술력으로 미국에 깔린 전 ATM에 관련 기술을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에이스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놀로지(대표 구관영)가 세계적 통신장비 고객사를 기반으로 성장을 위한 고삐를 조인다. 이 회사는 에


에이스테크놀로지의 TMA

릭슨, 노키아지멘스네트워크에 이어 지난해 중국 화웨이까지 고객사로 유치, 주력제품인 RF부품의 안정적인 공급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통신장비 기업들의 공급물량이 크게 줄지 않아 회사 측은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스테크놀로지는 해외영업과 시장개척에 공격적으로 나서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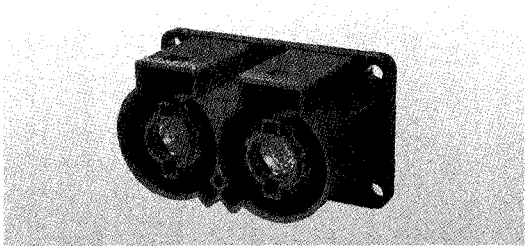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올해 매출 목표로 1492억원을 제시,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RF부품중 주력제품인 TMA(Tower Mounted Amplifier)의 고객사내 비중을 늘려, 세계시장 점유율(지난해 기준 15.5%)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광동성지역에 있는 4개의 해외공장 외에 인도 첸하이에도 공장을 세워,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현지 이동통신사 공략도 시도하면서 고객사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2년간 준비해온 신사옥 이전도 4분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첨단 연구개발 시설과 쾌적한 사무공간을 위해 총 287억원을 들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움추려들기 쉬운 시기에 신사옥과 해외공장 설립 등 공격적인 사업운영을 펼쳐 국내외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전략이다.

뜨거워지는 SSD 속도 경쟁에이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내년이 창립 30주년인 만큼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어려울 때 남들보다 공격적으로 나서 스스로 기회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S전선(주), 고전압 커넥터 출시



LS전선(대표 구자열)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300A(암페어)급 고전압 커넥터를 국내 첫 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자동차는 12V급 배터리가 사용되는 데 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는 300V 이상의 높은 전압과 수십 · 수백A(암페어)의 대전류가 필요하며 전원장치와 인버터, 모터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는 고전압의 커넥터와 케이블 등이 필요하다.

LS전선은 초고압 전력선의 접속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3년간 20여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해 고전압 커넥터와 케이블 등 미래 자동차용 부품을 개발해 왔다. 그 동안 고전압 시장은 야자키(Yazaki), 스미토모(Sumitomo) 등 일본 전선 회사들이 독점해왔으며 일반 자동차용 링터미널이 사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LS전선의 고전압 커넥터 개발 성공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용 부품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LS전선의 고전압 커넥터는 기존 링터미널을 사용할 때보다 조립시 작업성이 우수하고 전기적 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식 방지와 방수 기능 등 내구성도 뛰어나다. 또한 서울대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전자기 노이즈 측정 평가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노이즈 방지용 부품을 별도로 장착할 필요가 없다.

김대기 LS전선 자동차전장팀장은 "고전압 커넥터는 향후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용 중장비, 선박, 플랜트 등 고전압, 대전류의 제품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G전자, 중국 최고 3G 휴대폰 제조사 선정

LG전자가 중국 최대 IT 리서치 전문기관인 CCID가 세계통신의 날(5월 17일)과 중국 3G 전국서비스 개시에 맞춰 11일 중국 베이징의 신세기 호텔에서 개최한 '2009 차이나 3G 산업 포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3G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선정됐다.

CCID는 3G폰 제조업체, 3G 통신장비 제조업체, 3G 칩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 및 소비자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포럼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고의 3G폰 제조업체 분야에서는 LG전자가 선정된 데 이어 ZTE(中興: 쭝싱)社가 3G 통신장비 제조업체 분야, 그리고 MTK(聯發科: 랜파커)社가 3G 칩 제조업체 분야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CCID는 LG전자를 최고의 3G폰 제조업체로 선정한 이유로 뛰어난 3G폰 기술력, 세련된 디자인, 사용 편리성 등을 꼽았다.

LG전자는 최근 중국 3대 통신사의 첫 3G 전국서비스 입찰에서 다국적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동시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중국 3G 휴대폰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바 있다.

LG전자 중국지역사업본부 MC영업팀 진카이 디렉터(임원급)는 "이번 수상은 중국이 3G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권위 있는 기관 주관의 첫 시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보다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CCID(China Center for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중국 공업신식산업부 산하의 리서치 전문기관으로 휴대전화, 통신, 가전 등 중국의 IT/전자산업 관련 분석 보고서로 유명하다.

LG전자, 세계 최초 무압축 전송방식 적용한 '무선 (Wireless) LCD TV' 출시

LG전자(대표 南鏞 / www.lge.co.kr)가 세계 최초로 무압축 전송방식을 적용한 '무선(Wireless) LCD TV' LH 80 시리즈 (42, 47, 55인치) 3개 모델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LH 80 시리즈는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풀 HD 영상을 압축하지 않고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적용, 화질 손상 없이 원본 그대로의 영상을 구현한다.

또, 신호 전송 경로에 방해물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장해물을 피해 다른 전송 경로를 찾아낸다. 기존의 압축 전송 방식은 원본 영상을 압축하고 원상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신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화질 저하나 신호 왜곡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LG전자는 이 기술을 적용해 TV와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복잡한 선(Wire)을 없앴다. 대신 '미디어 박스(Media Box)'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무선으로 전송한다.

기존의 멀티미디어 기기들의 연결 선(Wire)은 '미디어 박스(Media Box)'의 외부기기 입력단자 (HDMI(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USB, 컴포넌트, 외부입력, RGB, 안테나 케이블) 에 연결하면 된다. 거실의 중심축을 이루는 TV와 주변기기의 연결 선(Wire)이 사라짐으로써 한층 품격 높은 거실 인테리어가 가능해 졌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화질 개선 기술인 '컬러 디캔팅(Color Decanting)' 기술, 최적의 음향을 제공하는 '인비저블 스피커', 등장인물의 작은 대사까지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클리어 보이스2' 기능 등을 이 제품에 모두 적용했다. 또한, 시력 보호와 절전 효과를 위해 '아이큐그린(EYEQ Green)' 기능과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플러스(Smart Energy Saving Plus)' 기술도 포함했다.

출하가는 55인치510만원, 47인치 350만원, 42인치 270만원이다. (스탠드 / 벽걸이 지지대 별도)

LG전자 HE 마케팅팀 이우경 상무는"이번에 출시한 TV는 LG의 스마트 테크놀리지 기술과 스타일리쉬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 이라며, "고급스러운 거실 인테리어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인 TV"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브라질에 LCD 모듈 공장 설립

LG디스플레이가 중남미 거점인 브라질에 연내 TV용 LCD 모듈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 상반기 진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투자 결정이 다소 지연됐다. LG디스플레이는 브라질 LCD 모듈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현지 TV 시장은 물론이고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는 브라질 '아마조니아'의 LG전자 TV 공장 내에 LCD 모듈 공장을 신규 구축하기로 하고, 상반기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LCD 모듈 공장은 착공 후 수개월 내 완공이 가능해 이르면 연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가 브라질에 LCD 모듈 공장을 설립하려는 것은 최근 신흥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LG전자의 TV 공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브라질을 비롯해 중남미 현지의 물류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에서 LCD 모듈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브라질 현지의 LG전자 TV 생산 규모는 연산 300만대 정도로 해외 사업장 가운데 적은 편이다. LG디스플레이의 LCD 모듈 공장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적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중남미 현지의 물류 사정이 북미 지역보다 훨씬 낙후돼 시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원래 올 상반기 진출할 계획이었으나 불투명한 경기 상황 탓에 현재 투자 결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최근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TV 시장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LG전자와 함께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 2009' 행사를 개최했다. 'IPS' 기술의 장점을 구현한 고선명 · 고속구동 TV용 LCD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브라질 등 중남미 TV 시장을 중국에 이은 IPS 마케팅의 전략 거점으로 삼고, 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있다.